<녹 취 문>

과제명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강희갑		
면담자	조연희	면담지원자	정지선
면담일시	2026. 6. 24.	면담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동아리실 1
녹취문 작성자	조연희	회차	1차

1. 시작멘트 : 일시 및 연구진 소개 (00:00:05~00:04:24)

본 면담은 2025년 인천광역시 미추홀 확산문화원의 구술채록을 위한 인터뷰입니다. 옛) 동양제철 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 도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위해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구술해 주실 분은 강희갑 선생님입니다. 일시는 2026년 6월 24일 수요일이고, 장소는 미추홀학산문화원 동아리실입니다. 면담 진행은 조연희가 하겠습니다.

2. 근황 및 개인 신상 (00:00:50~00:05:16)

구술자: 부족한 사람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면담자: 먼저 이름하고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고향 그리고 현재 가족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구술자: 저는 1948년 양력으로 5월 5일 충남 서산군 대산면 오지리 그래서 태어났어요. 호적에는 50년으로 돼 있고요. 출생은 48년도 출생됐고 그렇게 지금 가족은 집사람이 있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남매 이렇게 있습니다.

면담자: 지금은 어떤 일하고 계시는지

구술자: 지금은 상조 회사를 하고 있어요.

면담자: 은퇴 후에 또 이렇게 새로운 일을 개척을 하신 거네요. 쉬지 않으시고

구술자: 계속 놀지는 않았어요.

면담자: 고향에서 유년 시절은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구술자: 응 거기서는 중학교만 다니고 고등학교 인천에 와서 다녔어요. 인천 기계공고

면담자: 기계 공고 그러면 인천으로 온 게 언제이신지

구술자: 66년

면담자: 66년도 저번에도 말씀 주시긴 했는데 고등학교 때 화학을 조금 배우셨다고

구술자: 화학은 학교 과목 때도 좀 배웠고 전문에는 안 배웠고 과는 자동차 학과에요. 자동차

학과 우리 둘째 형님이 여기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전에 인천 재물을 몇만 원 실력 아니면 못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학업이 성적이 평준화 돼서 괜찮은데 거기에 다녔었는데 나보고 너도 재고 다녀라 그래갖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둘째 형님이 여기서 입학원서를 사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기계 공급 사 온 거야 자동차 학과를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사 왔냐 그랬더니 야 앞으로는 마이카 시대로 온다더라.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둘째 의지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그 학과를 다니는 거야

면담자: 뭔가 되게 빨리 그 시대의 변화를 좀 캐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 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약간 이쪽 계통 일을 해야겠다는 화학 쪽 일이 좀 적성에 맞으셨나 봐요.

구술자: 화학 쪽에도 적성이 맞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전공을 기계 쪽에 내연기관 쪽에 해서 열 관리 기사 자격증을 획득을 했어요. 그 소방관리 기사 위험물 기사 기능 자격증을 설득을 해서 취득을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동양학의 발전소라는 데 있어요. 발전소는 보일러가 물을 넣어가지고 끓이면 스팀이 발생해요. 그러면 계속 가열하면 스팀의 압력이 상승하고 있고 그 압력으로 42kg에 그런데 그 중간에 30kg로 이 터빈을 때려놓으면 이 터빈은 원형으로 돼 있고 그 안에 수많은 날개 브리드가 있어요. 그거를 42kg 스티이 때려버리면 회전이 엄청나게 그 회전력에서 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항상 공급하고 있는 전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단전돼 있을 경우 이 전기로다가 자체 발전해서 쓰는 게 그 터빈이에요.

터빈 왜 화학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냐 중간중간의 과정 과정 속에서 이 생산 제품이 들어가서 원료로 나오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전기가 다 설비들이 재운전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버리면 그 안에는 나이 물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 굳으면은 거의 공장 가동을 못 합니다. 수많은 생산 차질이 나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크고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발전기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가 발전을 하고 한전이 이상 있을 때는 자가 발전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꼭 가동해야 될 그런 설비들은 가동해서 공장 생산에 지속적으로 상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3. 인천으로의 상경과 동양화학 입사 (00:05:17~00:17:19)

면담자: 그 66년도에 인천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오셨을 때 그 집이 그러면 어느 용현동이셨던 거예요.

구술자: 송현동

면담자: 송현동

구술자: 송현동 누나가 송현도에서 살았어요. 살고 그 누나네 댁에 있다가 친구하고 같이 자취를 안 하고 송림동으로 와서 송림동에서 누나 친구가 또 그쪽에서 살고 있어서 또 하숙도 하고 그렇게 자취하다 하숙하다 그렇게 하고 졸업하면서 군대 가기

면담자: 혼자 올라오신 거예요. 가족이 다 오신 게 아니고 혼자 학교 때문에 그러면 그 미출

으로 오신 거는 회사 입사하시면서 오신 거예요.
구술자: 미추홀구는 결혼하고
면담자: 그게 몇 년도이신 거
구술자: 결혼하면서 74년도
면담자: 74년
구술자: 73년도 11월 9일 날 결혼했으니까
면담자: 74년도 73년도 그때 처음 미추홀구 그러면 학익동 용현동으로 오신 거예요. 이사를 아니 결혼해서
구술자: 결혼해서 거기도 송현동에 송현동 송현동에 누나가 거기에 있었고 누나 근처에다 집을 하나 전세를 얻어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았지. 움직이지는 않았어.
면담자: 아
구술자: 그리고 자취할 때는 송현동에서 하고 하숙할 때는 송림동에서 하고 학생 때만 조금 동만 이동만 하고 거의 송현동에서 살았어요.
면담자: 그럼 미추홀구에서 거주하신 거는 언제
구술자: 미추홀구 그거는 결혼하고 80 80년도 80년도 그래서 한 10년 정도 미추홀구에서 숭의동에서
면담자: 숭의동 그때 좀 이사 오셨을 때 좀 그때 마을 분위기는 좀 어떠셨어요?
구술자: 그때는 비포장 도로가 중간중간에 많았고 그때 저기 여기 자유공원에 가면 비포장들도 많았고 거기 사람들도 화장실도 별로 없었나 봐 여기저기에 그것도 있었어. 부인들도 그 정도로 낫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한 번 인천에 한 번 올랐거든요. 응 그때 올랐는데 그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저기다 그냥 실례를 많이 해가지고 그 정도였어요.

면담자: 그럼 졸업을 하고 바로 동양화학에 입사하신 거예요.
구술자: 아니요. 졸업하고 군대 생활 한 1년 반 하고 군 생활
면담자: 되게 짧게 하셨네요. 1년 아니지 1년
구술자: 1년 반이면은 그냥 뭐 거의 놀았지. 내가 눈이 한쪽에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 됐어요. 안 보여 이렇게 총을 겨누면 오른손은 얼른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안 보이니까 군대를 못 갔어요. 못 가고 파출소에서 근무를 했어. 그때는 기관병으로 해서 전철로 가서 훈련 6주 하고 파출소에서 1년 반 근무를 했지.
면담자: 그때 저번에 말씀해 주실 때는 바로 동양화학으로 입사하신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근무하셨던
구술자: 75년도 3월 3월 달에 그때 동양화학이 배가 증설해서 300톤이니까 150톤 생산을 하

다가 또 150톤 증설을 했어요. 그래서 300톤이야 그때 공개 채용을 40명을 공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그 광고를 보고 가서 응시를 했지 인쇄를 해서 발전소라는 데 거기로 입사를 한 거예요. 생산에 화학 공장 화학 전담하고 그 업무가 그런 업무가 아니고 설비를 가동하는 거 물 관리 전기 관리 그리고 일반 설비 저기 열 관리 설비를 관리를 했지 운전하면서 자격증 가

면담자: 공채 이제 모집을 보셨을 때 따로 준비하시거나 당시에 그랬던 건 없으셨나요?

구술자: 그거는 그 뭐가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니까 나 자격증 가지고 자격증을 제출하고 그 자격증 때문에 된 거예요.

면담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자격증인 거죠. 그럼 출근 첫날 기억나세요?

구술자: 출근 첫날 몇 월달인지 지금 모르겠어. 하여튼 3월달에

면담자: 3월

구술자: 3월부터 출근한 거니.

면담자: 그럼 처음에 그 담당하시는 업무는

구술자: 그때는 아주 최고 인생에 있어서 최고 얻은 거 기본이지 그때는 취직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랬어요. 어려워도 어려웠어도 되면 그때는 시급이 첫 번에 인천에 와서 저기 동양화학 전에 특수베니어공업주식회사라고 합판 회사를 좀 다녔어요. 특수베니어주식회사요. 그러니까 합판 회사야. 그러니까 그때 저 대성목재 그런 데서 나오는 합판이 있잖아요. 그 원목을 취급하는 회사야 그 회사 발전소로 들어갔지. 열관리 열 설비 운전대

면담자: 거기서는 하나

구술자: 거기서부터 거기서 한 1년 1년 반 근데 그 회사가 어떤 경로로 했는지 문을 닫았어. 그 바람에 한 1년 정도 놀았어요. 놀 때 공부를 했어요. 그때 어린 애 하나 큰애가 있었는데 걔 보면서 공부를 해서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열 관리, 위험물, 고압가스, 냉동 이런 걸 다 땄어요.

면담자: 그때 자격증

구술자: 그때 자격증 딴 거예요. 그 운전면허는 내가 자동차하고 가니까 운전면허는 70년도에 학교 다니면서 땄고 그리고 정비사 자격증 1급 2급 정비사 자격 자격증까지 따고 이게 내가 전문이 자동차잖아. 그럼 자동차 길로 갔으면 나 여기 안 와 그 돈 벌어 갖고 1급만 따면 인천 시내 모든 자동차는 1급 정비사 도장 아니면 못 나가요. 일단 정비사 정비 딱 들어오면 정비 다 하고 마지막 아 됐어 하고 도장 찍는 게 정비사 그게 마지막 도장 찍는 거야. 그게 찍어야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내가 2급을 따놓고 1급은 안 했어. 왜 난 기름 묻히기 싫어서

면담자: 다른 얘기긴 한데 조금 후회하기는 하셨어요? 나중에

구술자: 나중에 후회했지 지금 근데 다 인생 과정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쭉 어느 단계에 가면 그때 그랬으면 좋을 걸 그때 이랬으면 좋을 걸 그런 후회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기회는 한두 번 다 가져. 그런데 그때 그거를 내 거로 삼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 거 그리고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그런 그런 후회는 했지. 그러나 그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는 다시 되돌리는 건 아닌 거고 항상 현재가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

면담자: 근데 아까 그 1년 노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공채를 준비했다고 준비한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구술자: 그것 때문에 거기 회사 들어가서

면담자: 그러니까요. 그럼 처음 입사하셔가지고 담당했던 업무나 부서가 뭐였는지 좀 자세히

구술자: 동력과 동력과요

면담자: 동력과

구술자: 동력과는 모든 기계를 설비를 해서 전기를 발생하고 저기 스팀을 발생하고 물을 또 현장에서 쓰고자 하는 상수도 물을 계속 정제를 해서 좋은 물로 또 보내주는 데 있고 물 관리 스팀 관리 전기 관리 그렇게 세 파트가 동력과

면담자: 기술자셨네요.

구술자: 네 그럼요. 국가 기술 자격증 가지고 해야 될

면담자: 이 업무는 진짜 아무나 그냥 입사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였네요. 진짜

구술자: 위험물 취급도 1류에서 6류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액체로 된 거는 보통 4류, 벙커C유 휘발유, 경유, 석유 이런 거 다 4류로 들어가는 거예요.

면담자: 동양화학에서 은퇴 퇴직을 하신 거잖아요. 3년 전 3년간 동양화학에서는 3년 있으셨어요?

구술자: 3년 다니고 내가 그만한 자격증이 있으니까 다른 데서 픽업이 들어왔는데 동양에서 받던 급여 따블로 받고 간 거예요.

면담자: 어디에다가요?

구술자: 협화화학. 이 친구도 거기서 내가 협화하학 가가지고 이 친구 취직시켜 내가 먼저 가서 취직시켜줬지 먼저 왔던 친구

면담자: 이게 이 한국협회 화학이 어떤 곳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구술자: 화학이 지금은 거기 자리가 없어요. 그 옆에 청구화공이 있고 그 회사가 이름 잊어버렸는데 미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회사인데 청구화공 있고. 플라스틱 종이가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동양의 제품은 소다회인데 암모니아하고 석회가루하고 석해서 강원도에서 치고 하면 돌이 있잖아. 돌 그걸 저기 불에다 구워 그래서 빵 구 그러면 그 가루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죽 만들어 놓고 암모니아를 가스를 딱 투입하면 소다회가 나와요. 소다회 그 동양학은 주

제품이 소다회야. 소다회는 어디 원료로 들어가냐 일반 유리 자동차 유리 있는 원료로 들어가는 거야.

면담자: 근데 염화칼슘이 되잖아요. 그럼 겨울에
구술자: 제조 과정에서 염화칼슘도 나오는데 그 염화칼슘 공업용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가 많이나. 얼음 미끄러운데 거기다 넣으면 이 염화칼슘이 주위에 있는 수분을 다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해서 녹아버려 그러니까 물로 만드는 거예요. 얼음을
면담자: 그럼 겨울에 좀 더 바빠지기도
구술자: 겨울에 제품 잘 나갔지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동양화학은 독과점품입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없어요. 동양만 나오지 동양 저기 그 주인 이회림 씨가 개성 출신이에요. 개성에서 말로는 거기서 소금 장사하다가 여기를 왔다고 했는데, 너무 근면한 분이시고 그래서 허투루 다 돈 안 쓰고 현금은 그때 당시에 동양학교 제일 많았다고 그랬어요. 급여를 한 번도 밀리지 않았어. 그 또박또박 나왔지.

4. 동양화학 이회림 회장의 일화와 사원 복지 (00:17:20~00:24:17)

면담자: 이회림 회장님 얘기가 나와서 이제 좀 여쭤볼게요.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인천에 내려오셨다고 하셨었는데 그때 뭐 짜장면이나 냉면을 사주면서 이제 남기면 안 된다고 막 그랬던 얘기를 그때 일화를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회장님과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요?
구술자: 우리는 그 회장님하고 접근하기가 회장님 접근하는 부서는 전무 상무 임원 급에서만 하지 우리 일반 현장에서는 뵙기가 힘들어요. 거기에 초청도 안 되고 같이 가서 짜장면 뭘 그런 군번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분들의 같이 일하는 우리 상사 그분들의 말만 들은 거지.
면담자: 들었던 이야기도 한번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술자: 그거요. 가면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오면 그 밑에 상사들은 “야 회장님 아 좋은 거 주겠지” 기다리다 하는데 가면 짜장집이야. 짜장도 남기면 죽어. 왜 그래? 그 짜장 국물까지 다 먹여야 돼. 그렇게 검사했던 거야.
면담자: 복지도 되게 좋았다고 들었어요.
구술자: 복지 쪽에는 그때는 그렇게 내가 기억나기는 사원 아파트도 있었어. 근데 그 아파트 아마 복지 쪽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준 회사는 동화화학 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저쪽 풀장 동양 풀장 인천 새인천 풀장 그 자리에 고기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 자투리에다가 그래서 거기 직원들 다 임원급들도 임원급들은 주위에 사택들이 별도로 있었고, 그리고 아파트는 사원들.
면담자: 그러면 모든 직원이 다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은데 입주 대상이 되는 분들은 자격 조

건 같은 게 따로 있어요?
구술자: 없었어요.
면담자: 그냥 선착순
구술자: 선착순이고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가면 또 그냥 무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얼마를 또 내야
면담자: 임대료가 아니고 그 임대료
구술자: 그건 없는데 보증금 보증금 쪽으로
면담자: 혹시 사택에서 거주하신 경험은 없으신 거죠?
구술자: 없어요.
면담자: 그럼 보증금이 한 얼마 정도
구술자: 그거는 관심이 없어서 물어도 안 받고 또 그런 얼마 약이라고 들은 건 같은데요. 우리가 250인가 200 정도 그렇게 아마 됐을 거야. 그때도 2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200만 원과 25만 원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큰돈은 아니었어. 부담은 없었으니까.

면담자: 그럼 동양화학에서 근무할 당시에 노동 환경은 또 좀 어떠셨어요?
구술자: 그러니까 열악하죠. 열악해 왜냐하면 그 제품 자체가 나오면 암모니아 가스를 흡수를 해서 나오는 제품 때문에 암모니아 가스 냄새 소다회가 쭉 생산해서 이 죽인데 그걸 회사로 해서 이런 데다 넣고 이렇게 필터를 이렇게 돌아 그러면 여기 액체가 묻어 있어. 그러면 필터 안에는 진공으로 빨아 이렇게 빨아요. 그러면 물만 빨고 그 물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칼날 옆에 지나가면서 칼날이 딱딱딱딱 잘라줘. 그러면 물은 저쪽 안으로 빠지고 가루는 콤비아루로 해서 어디로 가냐면 물에서 건졌으니까 축축하잖아. 그러면 **칼사이나라**는 데서 드라이어로 가는 거예요. 스트림 30kg가 딱 들어가면 그 열기가 엄청나잖아. 그 열로 그 수분을 다 말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나오는 제품은 그냥 해도 다 날아갈 만큼 가로로 쏟아져 제품 사일로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그 사이노는 차들이 딱 와서 몇 톤 필요하냐 세팅해서 5톤에다 5톤 싹 했다면 딱 해서 밑에는 저울이 있어서 5톤이 딱 되면 딱 그쳐.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냐면 한국 유류로 가는 거예요. 최고 유류 제품으로
면담자: 지금이야 이제 그런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이런 게 좀 체계가 돼 있었는데
구술자: 마스크 사용 했는데, 지금처럼 뭐 마스크 공장에서 주지도 않고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냥 다 마시고 다닌 거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다닌 거야. 여러 개 아주 뭐 현장에 장화 신고 다니고
면담자: 물 때문.
구술자: 화학 회사니까 화학회사는 전기. 물 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독깨스. 암모니아,

깨스 그런 거니까 남자들 불쌍하다니까
면담자: 힘든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구술자: 몇 번 때는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싶어. 나만 굶나. 식구들 다 굶는데 다녀야지.

면담자: 근데 아까도 정전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공장이 가동이 멈추면 안 돼가지고 자가발전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뭐 그 자가발전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 또 기계가 하고 발전 그게 멈췄던 적은 아예 없으신 거예요.
구술자: 그렇지 자가발전을 항상 해야 되니까. 멈췄다는 공장 거기 문 닫아야 돼.
면담자: 1년에 한 번 정비
구술자: 그럼 1년에 한 번씩 대정비
면담자: 정비하셨는데 그 정비하는 날 유일하게 이제 직원들이 조금 쉴 수 있는 날이었다고 그래도 어쨌거나 출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면 그날 뭐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구술자: 그날은 종일 설비를 뜯어가지고 청소하면
면담자: 모든 직원들이 청소에 다
구술자: 다 청소 그거 뭐 주위 환경 정리 설비 청소하는 거야 청소 탱크 탱크에 이제 1년 동안 계속 이제 가동해서 밑에 찌꺼기들이 잔뜩 있잖아. 그걸 다 청소하려면 냄새 아주 장화 신고 말도 안 해. 사람 꼴 안 나지
면담자: 그게 한 열흘 정도 되셨다고
구술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5일 기름은 5일
면담자: 그럼 그날 또 회식도 하시고 이러셨겠어요? 교대 근무도 안 하니
구술자: 그때는 이제 다 만나니까 회식들 하고

5. 학익동의 추억과 3교대 노동의 고단함 (00:24:18~00:29:30)

면담자: 그럼 그때 회식했던 이야기도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식이요
구술자: 이 과별로 회식을 하는 거야. 과별로 그리고 이제 회식하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쩌다 한 번 반장도 만나고 주임도 만나고 과장도 만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잡담하면서 먹는 거야. 먹고 나서 그날은 이제 자기 여기 학익동에 끽동이라고 그랬어. 거기 저 아가씨들 많아. 그래 거기 다 그런 얘기야. 난 거기 근처도 안 가서 무서워서 막 가면 막 늘어지고 잡고 그러는데 그게 무서웠어. 나는 그래서 뭐 흔한데 못 갔어.
면담자: 그럼 자주 가는 단골집 이런 게
구술자: 있죠. 저기 술집 막걸리집 막걸리집 거기 막걸리 시켜놓고 화투 하는 거야. 거기서도 식구땡 뭐 둘이 땡 뭐 그런 거 100원 넣고 천 원 넣고 그러고 월급 타거든. 그러니까 그동안

은 계속 외상으로 먹어. 우리는 또 술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지. 근데 우리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런 걸 안 하고 술을 안 먹어도 가자는 데는 다 갔으니까. 술 취한 사람들 다 길거리 다 해주고 데려다 주고 닦아주고 계산해 주고 그럼 그때는 서로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술채도 생각은 다 해. 그럼 정성껏 해봐. 그러지 없는 소리 내는 소리야. 정성껏 다 얘기해 주고 그다음 날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이야기야.

면담자: 필름 끊기셔가지고

구술자: 그래서 나도 술 쳐 먹는 데 다 개새끼라고. 나는 정성껏 이야기 다 해주고 그 토한 거 다 닦아주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이거 몰라 그때는.

면담자: 그럼요. 그럼요. 그 공장 문 밖에 나가면 이제 마을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골목의 그 술집들이 대포집인 거죠. 마을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그러면 좀 출퇴근하면서 봤던 마을 풍경이라든가

구술자: 그때는 다 먹고살기 힘들어서 지금은 여유가 있어서 노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다 일하러 나와가지고 뭐 시들거리고 그럴 타이밍이 없어 힘들었지.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봉급날 하러 그냥 공휴일이야. 그날 그거 그전에 또 먹었던 거 외상으로 먹었던 또 외상값 갚으러 가야지 못 가고 그러면 술집 여자들이 또 와서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지. 이제 다니면서 정교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떤 추억들은 그게 지금하고 그때 그 중간 그런 시절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그리고 그때는 여기 동양화학 앞에가 그 매립지예요. 흙으로 해서 일부분은 밭으로 각자 부지런한 사람은 거기 가서 밭을 만들어 이렇게 줄 쳐놓고 그런 호박도 심고 오이도 심고 도마도도 심고 자기가 각자 부지런한 사람은 가서 거기에서 거기서 먹고 반찬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여기 살림했던 분들만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안 지어가고 농사 출신이지만 그런 기회는 없었어. 농사 지을 기회는 없었어.

면담자: 일하면서 약간 쉬는 시간에 이렇게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직원분들이 쉬지 않고

구술자: 지금처럼 아침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 오는 게 아니고 그때는 3교대야 3조 3교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 오후 3시부터 10시 오후 10시부터 그다음 날 7시. 이 3교대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리듬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냥 집에 가면 자고 나고 또 집에 가면 자고 나고 그때 교대될 때 그때 조금 8시간 기회가 있는데 그때 조금 노는 거야. 그때는 그렇게 여유 있게 막 놀고 그러지 못했어요.

면담자: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구술자: 고생 많았지. 그럼 그럴 경우 한 달 봉급 12만 원 13만 원. 내가 들은 건 제일 먼저 73년 2년 3년도에 얼마 받냐면 350원을 받아 350원 한 달 350원 350원 그래

6. 1988년 노동조합의 변화와 카리화학 입사 스카우트 (00:29:31~00:48:17)

면담자: 이제 중간에 이제 성과급이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노조가 결성되고 나서부터 이제 성과급이나 이런 게 월급이 조금 치솟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처음 그 엄청난 혜택을 받으셨을 때 기분이 조금 어떠셨어요?

구술자: 동양화학 때는 동양화학 때는 노동조합에 직접 관여를 안 하고 관심도 없었어. 그냥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봉급 인상 때 그때 노사가 갈등으로 인해서 좀 주고받고 왔던 그런 것만 있었고 그때도 그렇게 노동조합에서 힘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힘이 셌냐 88년

면담자: 맞죠? 88년

구술자: 88년도에 노동조합 없던 회사들이 거의 다 그때 다 설립이 다 됐어요. 그 이후로 90년대 90 2천년대 그 안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 그때는 노사가

면담자: 한국협학에 계실 때

구술자: 그때는 아주 노동조합은 없었고 협화화학이 또 딱 3년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그때 동양화학그룹이 여기 지금 협화화학이라고 저 유니드에요. 지금 삼광유리 있고 저 수지 지금 개발하는데 거기가 다이아몬드 상륙하고 50대 50 동양하고 신설하면서 공장을 세우면서 그게 몇 년도냐 82년도까지가 79년도 80년도에 공장을 그 하나 세웠어요. 카리화학이라고 그때 내가 동양화학 3년 다니고 협화화학 3년 차 될 때 그쪽 카리화학에서 어느 과장인지 나한테 이렇게 온 거야. 이런 회사를 짓는데 동양화 동양은 잘 알지 동양이 다이아몬드하고 합작해서 이런 회사를 짓는데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있는데 공장장도 면담을 했는데 실력이 공장장 마음에 안 든다. 근데 당신밖에 없으니 우리 회사에 와서 같이 일할 수 없냐 왔어요.

나한테 그래서 언제 한번 와서 면접 한 번 보자 했는데 가서 면접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급여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쪽에서 그 급여를 못 주겠다는 거야. 카리화학에서 카리화학에서 과장급 급여라는 거야. 그게 그러면 그보다 더 다운돼서 아니 내가 지금 직장을 여기서 다른 데로 옮길 때는 뭔가 나한테 이득이 있고 다음에 내가 여기서 100원을 받았으면 110원을 뭔가 받아야 나도 거기로 가는 건데 오히려 더 뺏겨 갖고 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 근데 여기 먼저 협파화학은 규모가 적고 여기는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나한테는 이제 강점으로 온 거지. 그러니까 옛말에 고기도 어항에서 자라는 고기하고 연못에서 자라는 개고기하고 바다에서 자라는 고기 스케일이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때만 해도 30대니까 그래 내가 앞으로 먼 장년을 보자 지금 현재 요거 급여 가지고 이럴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청년을 위해서 그래 그래서 깨어갖고 간 거예요.

면담자: 많이 차이 났나요?

구술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죠. 그래도 좀 집 사람은 반대하고 그 조금 차이는 났는데 그래도 그래 그냥 갔어. 그래서 거기로 간 거야. 28년을 다녔어.

면담자: 거기서 은퇴를 거기서 하신 거군요.

구술자: 거기가 에피소드가 많아요. 나하고 관계가

면담자: 그 얘기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술자: 그때 한불화학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까지 갈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었어. 우리가 여기 동양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거기는 조금 우위의 선에서 아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거의 오래된 분들만 차출해서 갔고 거기는 내가 그 자격증이 있으니까 거기서 원해서 나 같은 사람을 원해서 계속해서 갔고 갔는데 그때 이제 88년도에 거기 우리가 저기 삽질했어요. 가서 기초 창립 멤버야. 우리가 82년도 10월달에 갔거든. 그전에 이제 기초공사 다 하고 설비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가동도 안 하고 가정 저기 초기 창립 멤버네요. 창립 멤버로 갔지. 그래 갖고 2008년도 5월달에 은퇴했으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격증 가지고 이제 거기도 이제 들어갔고 그것도 88년도에 창립이 노조 창립이 된 거예요. 그때 누가 했느냐면 내 공고 후배 놈이 그걸 해서 거기서 같이 내가 총무도 맡아서 같이 하고 그렇게 쭉 했어요. 그 쭉 오다가 너무 이게 노사가 갭이 너무 큰 거야. 우리는 25% 올려달라 회사는 5% 7%다. 그러니까

면담자: 너무 차이가 큰데

구술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심했어요. 제품을 생산하면 나가 정문을 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정문을 차단해 버린 거야. 못 나가게 그러면 회사에서 나를 앞세운 거야. 내가 주임으로 있었는데 이거를 잘 조절해서 회사 측도 그렇고 저쪽 노측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하면서 풀어갈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 당신이 좀 맡았으면 좋겠다. 아니야. 그거 그게 괜히 왜 저기 욕 먹고 그리고 서로 이하 관계가 또 굉장히 서로 예민한 상황인데 그놈이 앞장서서 했다가 나 맞아 죽고 그냥 여기 내 명예 명까지 못 살아 맞아 나는 못하고 계속 해서 알았습니다. 그때 예산을 많이 줬어요. 제가 한때 몇천만 원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쓰라고 법인카드로 주고 현금으로도 주고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중간에서 역할을 이제 하자 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 개새끼 말이야 돈 처먹고 회사 농 처먹고 앞장서 가지고 제대로 하고 이게 어떻게 무마시키려고 말이야”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급여 가지고 서로 협의를 보라 안 되는 거야. 너무 멀어. 이게 근소 차이로 돼줘야 뭔가 양보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5% 7% 10% 그러면 2.5%씩 양쪽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워낙 또 7%에서 20% 막 그렇게 25%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돈이 많으니 동력 차이 제품 하나 생산하는데 부산물이 12가지가 나와요. 이게 화학회사가 굉장히 재미있어. 재미있어. 그거 설명하면 진짜 우리 중앙에 있는 회사 원료가 다 우리 회사잖아. 옥시크린이 그리고 가습기에 들어가는 그 뭐지 이렇게 물 들어가는 게 있잖아. 가습 살균으로 가습기 그것 때문에 막 천식이 오네. 이게 해서 정부하고 많이 싸웠잖아. 아직도 그게 해결이 잘 안 됐는데 그러면 원료가 우리 회사로 나오는 거야.

양잿물 비누 원료 저기 진공관 원료 그런 것들 다 우리 회사에서 다 나와버려. 그 제품 과정

과정에 좀 잘 설명하면 재미있어요.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는 그거고 이제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나는 복지 쪽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집을 사자. 집을 사서 사원들한테 그때 150인가 200 그러니까 200 주면 뭐냐 하면 회사 당신 그만둘 때까지 그러니까 200만 주면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 그걸 전세로 놓든지 월세로 놓고 여기 아파트로 들어온 거예요. 사택으로

면담자: 카리화학에서도 그럼 그때 사택을 한 거예요?

구술자: 그래서 30차 50차 70차 해가지고 130차까지 다 사 거의 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다 들어오는 거 그러면서 신혼부부들이 많으니까. 다 20대 30대니까 애들이 다 유치원들하고 그러잖아요. 유치원들한테 지원 조금씩 해주고 그럼 나는 뭘 하냐면 그 집 사라 그러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금 몇 프로 5% 10% 10% 이렇게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 내 집 가지고 월세 전세 주고 아니면 그 전세금을 가지고 저기 은행 다녀와도 이자도 나오고 머리 빨빨 하는데 이자 놀이도 하고 그러니까 집을 그렇게 해주니까 아무 소리 안 나.

면담자: 집이 최고죠.

구술자: 집이 최고 그리고 저기 어린애들 저거 할 때 입학할 때 그것 조금씩 지원해 줘. 그래 갖고 대학교까지 다 그러니까 쭉쭉쭉쭉 가면서 집을 이제 거기 다 100% 누구든 원하면 다 들어가게 하니까 이게 노사 갈등이 다 없어지는 거야.

면담자: 현명하셨네요. 진짜

구술자: 그때 이제 내가 참 욕 먹으면서 마저 하면서 나는 남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야 그러면 100명 하나 관련 하면 안 돼. 그러면 현장에서도 누구 말을 딱 하면 그 주위의 모든 몇 명들이 우르르 그 말 듣는데 거기는 우두머리가 한 명씩 있어요. 그 사람을 딱 체크해 가지고 그 사람을 뒤로 만나서 술 사주고 아가씨들 저 붙여주고 거기 술 취하면 그냥 다 닦아주고. 그냥 다 집에 데려다 주고 또 집으로 갔어요. 내가 집으로 가서 결혼기념일이 언제인지 부부 생일이 언제인지 애들 생일이 언제고, 언제 유치원 입학하고 리스트 받아 가지고 내가 PC에 난 94년도부터 PC를 배웠어요. 배워 갖고 회사에서 들어오는 모든 전자제품은 내가 제일 먼저 썼어. 난 고등학교 졸업했지만 회사에서 그런 권한이 있었고 인정도 해줬고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이런 거 나온 사람들이 그거 쓰려면 카메라를 어떻게 쓰는지 저기 스택 스캐너를 어떻게 쓰는지 다 나한테 물어본 거야.

오면 나부터 써야 되니까. 그런 부서에서 관리팀이 TPM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TPM 사무장 사무국장 내가 한 거거든. 그래서 공장에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것만 설비를 이거만 너 저기 청소하고 요것만 관리해” 그러다가 조금 이따가 또 하나 설비를 해놓고 그러면 짜증 나는 거야. 이 개새끼들 말이야. 그냥 공급을 조금 주면서 일을 더럽게 많이 시켜. 그래서 내가 이제 집으로 가서 그걸 한 거예요. 집을 다 해놓고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반 먼저 출근을 해. 그럼 피스를 열어놓고 오늘은 누가

생일이고 누가 결혼기념일이고 이 파업 중에 다 리스트 해서 내가 시간 없으면 전화해. “오늘 누구 생일이죠? 오늘 결혼기념일이죠.” 내가 시간 있으면 애들 필통 연필 책가방 그리고 부부 결혼기념일 꼭 저기 장미꽃 그거 섞어서 이런 거 간단하게 해서 한 송이 해서 집으로 가 그러면요. 부인들이 울어요. 자기 남편도 애들도 아무도 해 주는데, 엉뚱 사는 나와서 축하합니다. 애들 염려해 주고 뭐 염려해 주고 그러니까

면담자: 사실 그 직원분 와이프를 꼬신 거네요.

구술자: 남편보다 나를 더 좋아해.

면답지원자: 그러니까

구술자: 애들이 남편이 말을 안 듣지 내가 집에 들어가서 부인한테 애들한테 그렇게 잘해주니까 나한테 꼼짝

면담자: 설득이 되는 건

구술자: 백 마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다 내 사람으로 만들고 회사 내 집을 만들고 내가 나는 그 부서가 뭘 자꾸 만들어 달라는 거 없는 거를 창조를 해서 만들어 그리고 만들면 일이 더 쉬워 첫 번에는 관리하는 데 없지만 더 쉬워 2시간 걸릴 거 1시간밖에 안 걸려. 열사람이 할 걸 5명 밖에 안 해. 그 결국은 어떤 회사를 만들었냐면 전국에서 우리 회사로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나한테 와서 임원들이 오고 중간 관리자 현장 관리자 그러면 투어를 a b c로 나눠 임원들이 오면 여기 투어 중간 관리자는 여기 생산 말단 직원들은 여기 그렇게 해서 오면 투어를 한 2시간 공장 다 보여주고 다 모아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4시간 5시간 그거를 다 서서 다 브리핑 다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제안서를 많이 했어. 제안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서 내가 여기서 일하는데 청소 도구가 저기 있어. 그럼 이거 갔다 오는데 20분 30분 걸려.

그러면 그게 로스 타임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 30분을 줄여. 그러면 여기 청소하려면 여기 다 그거를 설치하는 거야. 비가 있으면 비가 여러 개를 놓게 하면 하나 3바퀴 하나 쓰레기통 하나 거기다 사도 하나 걸어놓고 꼭 필요한 것만 그 자리에다 넣는 거야. 그럼 거기서 주고 거기다 걸어놓으면 그럼 너 어디 가서 빗자루 가져와 그러면 거기로 가는 거야. 여기서 동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8시간 근무하면서 쓸데없는 로스 타임을 다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는 걸 한 사람이 해도 남아 그러니까 공장이 한 80명이 일하니까 한 30명이 일하고도 남아 그러니까 인건비 줄이고 공장 더 깨끗해지고 설비를 하나 설비를 설치해 놓으면 20년 돼도 그 설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니까 내가 이 숲이라는 게 사람도 이렇게 만져서 오늘 만졌는데 이 감이 있잖아.

근데 내일 또 이렇게 만져 어저께 만졌는데 조금 떨림이 없었는데 오늘 떨림이 있어. 근데 어저께는 따뜻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뜨거워. 아 여기 뭐가 있다. 그럼 이렇게 잡으면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거 공무 부서로 요거 난바 거기 난 뭐 뭐 무슨 펌프 a급 열이 난다. 그 사

람들이 와서 미리 방지하는 거야. 고장 나기 전에. 그러니까 설비가 그러면 설비에 먼지 있으면 안 돼. 항상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20년 설명한 거는 지금 한 거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여기서 회사는 돈이 티끌 모아 태산이야. 인건비 제품 흘리는 거 한 방울도 흘리면 모아가지고 다시 정화해서 다시 또 제품 생산할 때 또 가고 그러니까 버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불을 만들어줬어요. 내가 28년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3년을 회사에서 저기 공장에서 일해 달라고 저한테 왔어요. 먹여줄 거는 다 먹여줄 테니까 좀 가서 좀 일 좀. 중국 사람들은 여자야. 현장이나 다 여자고 남자는 앉아서 컨트롤 보더만 컨트롤 운전을

면담자: 3년을 카리화학에서 더 일해달라고

구술자: 일해 달라고

면담자: 중국에서 퇴사하실 때

구술자: 그렇게 그래서 정년 하지 말고 이제 하되 또 더 추가로 거기 가서 일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회사 때문에 교회 일을 못 했거든 교회에서 뭐 좀 봉사하라고 나 회사 바빠서 안돼. 근데 이제 먹고 사는데 뭐 돈도 필요도 없고 하루에 세 끼 먹고 그러는데 잘 데 없고 그러는데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이 언제 불릴지 모르는데 이제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것 다 만류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한 거지.

7. 동양화학의 위상과 끈끈했던 동료애의 기억 (00:48:18~00:52:02)

면담자: 회사가 다 가까이 붙어 있었잖아요. 다니셨던

구술자: 여기 동양 여기 있으면 저기 카리화학 여기 이렇게 한 미추홀구에 다 있었지.

면담자: 그럼 약간 그러 걸어 다니면서 마주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는 아니고 조금

구술자: 각자 회사

면담자: 아니 궁금한 게 회사가 이렇게 가까우면 출퇴근할 때 마주치잖아요. 전에 전 직장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 좀 궁금해서

구술자: 주간만 하면 5시 반 6시에 퇴근들 하니까 그때도 서로 약속해서 만나고 그러지 교대 근무를 하니까 그런 게 없어.

면담자: 아 그랬구나.

구술자: 그럴 게 없어.

면담자: 동양화학에서는 짧게 계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동양화학이 또 식당이나 이런 데서 나 동양화학 다녀요. 이러면 되게 위상이 대단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술자: 그때 동양화하고 인천 판유리

면담자: 판유리 그래서 막 외상도 해주고

구술자: 유리는 그 꿈의 아주 직장으로 그렇게 거기 산업이 많이 선호했고

면담자: 그 대접을 좀 받아보셨나요? 동양화학 다니실 때 그런 외상이나 이런 대우해 주고

구술자: 동양 사람들 이름만 적어놓으면 그냥 가서 먹고 싶으면 그냥 이상이 없고 딱딱 보고 나 딱 갖다주니까 앉으면 이 회사로 오는데

면담자: 그만큼 믿을 수 있는 회사라는 걸 아니까 외상을 또 해 주신 것 같아요. 친구 사돈이신 그 친구분 이렇게 데리고 오셨잖아요. 시골에 계신 분은 이렇게 같이 회사 옮겨 다니실 때도 같이 다니셨는데 어떻게 보면 동고동락을 어떻게 보면 사돈이지만 굉장히 또 가까이 지냈던

구술자: 부서가 다르니까

면담자: 약간 그 동료의 틀려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 사돈과의 동료애도 어떻게 또 끌고 가 이렇게 데리고 같이 이동하셨는지

구술자: 지금 같아서는 서로 이제 뭐 생활이 그때는 막 생활이 꼬여서 매달려서 애들도 제대로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고 회사 하면 회사 일만 100% 다 거기에 전념 다 하고 또 퇴근하면 집에 가면 피곤하니까 자고 먹고 또 눈 뜨면 또 회사 오고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는 제로야. 부부 관계도 이제 제로야. 그거는 그 애들도 어떻게 낳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키웠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알아서. 그런데 제대로 용기를 좀 사주든 뭐 학원 뭐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저들이 알아서 다 공부했는데 그래도 일류 대학교는 다 나갔다 갔다 와서 저희들 공부를 했는데 그랬지. 사돈이라고 해서 친구라고 해서 만나서 뭐 하고 그건 없었어. 부서도 달랐고 또 부서가 다르니까 같은 부서끼리 또 만나도 만나게 되고 그러지 사돈이라고 그래서 또 만나고 그건 없었어.

면담자: 그래도 뭔가 좋은 조건으로 가실 때 같이 이렇게 또 데려가셨잖아요. 같이 다니셨잖아요.

구술자: 또 그러다가 가고 나서 또 한참 있다가 이제 왔지. 이런 회사야 거기서 또 거기 회사가 또 다른 데로 가게 됐고 울산인가 어디로 가게 됐어. 먼 데로야 먼 데로 가지 말고 그냥 여기로 와 그래서 좀 미달은 됐지만 그래도 저기 아는 분들이 또 위에 있으니까 또 그분들이 또 나를 또 신뢰를 하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당신이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8. 미추홀구의 변화와 옛 일터에 대한 소회 (00:52:03~00:59:56)

면담자: 뭔가 되게 돈독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어쨌거나 이제 카리화학이 또 미추홀구였으니 그 마을이 변해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구술자: 진짜 그거 많이 봤죠.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렇게 되니까 그 상태로 수년간 흐른 거야. 동양 쪽 이쪽에는 여기서 나온 폐기물 그걸로 그냥 하얀 죽으로 다 그냥 있었으니까 여기에 뭐 아기자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갈 때 들어갈 때부터 28년도 나올 때까지 다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거기에 뭐 변하는 어떤 조건 그거에 대해서

는 이야기할 거가 없어.
면담자: 이제 막 동양화학 자리는 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제 공원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또 이제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구술자: 여기 지나가. 교회는 숭의동이 있고 집은 연수동이거든요. 새벽에 교회 왔다 갔다 한 번씩 하고 낮에 왔다 갔다 여기 오면서 이 아파트에 섰잖아. 쟤가 내가 75년도 해서 78년도 3년 동안 저기서 근무를 했는데 그런 그때 떠오르지 그때 출근하면서 이런 생각하고 퇴근하면서 이런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떠올리지. 딱히 뭐 도움 될 것도 없을 거야.

면담지원자: 제가 인터뷰했던 구술자분들이 하셨던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니까 저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 다 끝나셨어요?
면담자: 마지막만 남았어요.
면담지원자: 그러면는 제가 한번 조금 카리화학에서 노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노조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구술자: 그렇죠.
면담지원자: 노조 위원장까지 하셨던 거예요?
구술자: 아니요.
면담지원자: 어떤 역할
구술자: 장의 부장이 있고 총무가 또 있어요. 내 후배야 고등학교 후배가 위원장이 했고 나 위원장까지는 안 하고 그 밑에서 이제 임원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컨트롤 했지. 조정하는 너무 강하게 나가지 말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이제 집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노조가 나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알았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여기서 가장 이렇게 센 놈이 있어. 주먹이 그놈이 나한테 불러서 그래 이 세상 사람들 어떤 분 이야기해도 난 안 듣고 내 말이라면 내가 듣는다. 설득력이 굉장히 그 친구가 그 말을 한마디 딱 하나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마음이 와닿잖아요. 마음이 와닿으면 신뢰가 생기는 거야. 그 그러면 서로 신뢰가 서로 주고받고 하면 그 이상 없는 거야. 서로 신뢰를 하면 내가 뭐를 하든 상담이 뭐를 하든 믿으니까 맞아.
그러면 그 신뢰가 하나의 큰 이제 자산인데 과거는 자산이 뭐 회사가 회사로 말한다면 자산이 돈이었다면 지금은 자산은 사람이라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을 회사가 100을 얻으면 벌으면 한 90 아니면 한 10만 갖고 90을 베풀어라. 내 직원들한테 베풀고 사회 환원하고 그래야 이게 지속적으로 그런 사회 또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는 고객들이 있잖아. 고객도 내부 고객 외부 고객 난 그 직장 생활에서 18년을 고객 관리를 했어요. 고객과 그래서 상대방의 눈매에 딱 봐도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뭘 원하고 있고 오늘은 어제 저녁에 집 안에 뭐가 있었고 뭐가 있어 거의 70%는 맞춰요. 그러면 회사고 가정이고 여기 건

물 딱 들어오면서 딱 보면 여기에 오너의 마인드가 지금 어떠냐 그것까지도 읽어요. 그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객을 많이 관리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접하잖아요. 나 우리 교회 8만 7천 명 거기에 중심에서 제가 행정실장을 했어요.

그러면 맨날 그게 다 들려 다 와 다 하고 저는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듣는 스타일이 경청해요. 다 들어줘. 한 번은 칼 가지고 온 거야. 자기 부인이 우리 여기 목사하고 요란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때만 해도 신앙생활 깊은 사람들은 교회 무슨 행사 부흥이 오면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먹고 자고 또 자고 새벽에 올라오면 귀찮으니까 일어나서 또 듣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 남편이 이렇게 왔으면 밥도 차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가정은 신경 안 쓰고 교회만 신경 쓰니까 칼 들고 오면 술이 이렇게 먹고 딱 꽂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선생님 잘하셨다고 용 앉으시라고 저 앉아놓고 뭐 때문에 오셨냐고 1시간 반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술도 먹고 다 얼마나 화가 나서 다 들어주고 이제 다 하셨냐고 다 했다고 근데 내가 이야기했다 해. 내가 그 마음을 내가 내가 겪은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냐 그 사모님도 너무 잘못했네요.

가정이 먼저지 어떻게 교회 그거는 나중에 지 가정부터 원활하게 잘 해놓은 다음에 교회지 가족 내 가족들이 사는데 가족 몇 시고 여기 와서 하면 그건 저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선생님이 담임 목사는 뭐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못되고 못난 놈들 이렇게 하면 뭐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착한 사람이 모인 곳이야. 착각하지 말아서 그렇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여지껏 살아가면서 집사람이고 애들이고 친구들하고 다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은 내가 목사님이라 목사님 나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입니다. 장로님은 지금 내가 얼마나 있어요? 1시간 반 됐네요. 한나 우려 잡고 다 들어 그게 너무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내 희생이 포함되지 않으면 내 희생이 같이 묻어서 가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는 꽹과리랑 똑같은 거야.

면담지원자: 뭔가 설교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해도 될까요? 더 얘기하셔도 됩니다.

구술자: 많아요.

9. 경영 혁신 운동(TPM)과 주임으로서의 생산 관리 (00:59:57~01:05:54)

면담지원자: 그래요. 지금 은퇴하실 때 어쨌거나 뭐 할 때 카리화학에서 은퇴를 하신 거잖아요. 은퇴하실 때 부서가 생산 관리

구술자: 생산 관리 때

면담지원자: 그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90년대 초반 이때쯤에 경영 혁신 운동이라는 게 나라에서

구술자: TPM이라고 일본에서 도입을 한 거예요. 토탈 종합 생산 보전이에요. t 토탈 p는 프

로덕션 저기 m은 멘트네이스 그래서 종합 생산 버전이에요. 그거를 이제 도입해서 했는데 주 목적이 뭐냐 5가지예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마음가짐 이거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태어나서 제멋대로 하잖아. 그런데 그 습관을 정리 정돈 청소 청결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 사람 정서를 그러니까 또 나온다. 정리 정돈이 무슨 뜻이에요? 정리는 뭐고 정도는 뭐예요? 비슷하죠.

면담지원자: 모두 제자리 깨끗하게

구술자: 아니요. 정돈은

면담지원자: 깨끗한

구술자: 깨끗하게 정리

면담지원자: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죄송합니다.

구술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정리 좀 해.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정리 좀만 잘하면요. 굉장히 넓어

면담자: 맞아요.

구술자: 넓게 살아. 그런데 그냥 쓰지도 않을 거 다 쟁여놓고 버리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 갖고 줘봐. 난 집사람하고 항상 조금씩 다투는 거가 집에서 이제 국자 그런 거가 이제 꼬지가 있잖아. 그러면 국 끓이면 국자로 뜨잖아. 여기서 여기서 가져와. 그래서 거기서 쫙 해서 여기 맛도 보고 해놓고 그냥 거기다 놔 여기다 놔 그러면 국도 하라고 반찬도 무덥고 그러면 바닥도 묵잖아. 그럼 나중에 이제 어디 다니다가 어디 다른 데는 없는데 국자는 항상 여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야 어디 국자 가자 그러면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여기로 가는 거야. 정도는 꼭 있어야 해야 할 장소에 꼭 필요한 것만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메모지를 딱 하려면 연필이 있어야 되잖아. 전화기 옆에 연필통하고 연필 나오는 거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가 사준 거 쓰던 거 다 꽂아놔. 딱 빼 갖고 정류장 안 나와 또 이거 넣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거 또 그 자리에서 또 바꿔 그러면 한 번 딱 찍어 여기서 쓰고 저 말 거

면담자: 정리해야지 걔들 버려야지.

구술자: 그러니까 정돈은 꼭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양만 놔라. 이게 정돈이고 정리는 쓸 거냐 안 쓸 거냐 구분해놓고 안 쓸 거는 그렇게 보자는 거야. 여기 만족도 장점 있어. 쓸 거 딱 두 개 나오게 나머지는 185개도 다 못 써. 그거 안 버려 그거 다 버려라 이거야. 찾으러 다니는 거야. 아니 연필깎이는 항상 거기 가면 있어야 돼. 그런데 쓰고서 아무 데도 안 와. 그럼 그거 찾으러 너 연필 가게가 어디 있냐고 이놈 저놈 막 애매한 사람 잡아 맞아. 이게 정돈 정돈 정리 정도만 잘하면요. 집이 편해요.

면담지원자: 그걸 은퇴하실 때까지 그 활동

구술자: 예 그거를 18년 거의 20년 했어요.

면담지원자: 직급은 뭘로 은퇴하셨어요? 최종 직급이 최종 직급이 뭘로 은퇴하셨는지 물어봐도

구술자: 그냥 주임이에요. 주임

면담지원자: 생산 관리팀의 주임을

구술자: 주임이고 그건 거기서는 생산에서는 주임이에요. 제일 끝이 아주 위야. 근데 그 직급 가지고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사무실로 픽업이 돼서 그 업무를 한 거예요.

면담지원자: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기술직에 계셨던 거

구술자: 이제 내가 운전하고 막 그런 거 그걸 놓고 이제 사무실로 와서 여기는 뭐냐 사람 관리

면담지원자: 관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보여졌기 때문에 관리직

구술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라면 여러 사람이 그래 그래 알았어. 그렇게 따라갈 사람이 리더십이 있어야 그 공장에 회사가 조용하게 가는 거예요. 어디서 큰소리는 땡땡땡땡 봉급이 적네. 보너스를 주네 안 주네. 그냐면 이게 긍정 심리에 의해서 톱은 힘들어. 다루기가 이제 공장 편안하게 가줘야 서로 이제 좋은 거지.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생기니까 달라고 안 해도 주고 안 좋아도 그래서 그랬지 하고 오다가

10. 은퇴 후 유니드(카리화학) 퇴직자 모임과 회사의 전폭적 지원 (01:05:55~01:17:54)

면담지원자: 혹시 은퇴 후에도 카리화학 계셨던 분들을 좀 만나시는 분들이 모임이 있으세요?

구술자: 저 모임이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

면담지원자: 동양화학도 있으세요? 혹시

구술자: 동양은 없어요 카리화학은 지금 한 30 한 2~3년 됐을 거예요. 30 그러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정년 은퇴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2개월에 한 번씩 하다가 3개월에 한 번씩 모여요. 지금 주소로 한 46명 정도 되는데 모이면 많이 모이면 28명 25명 한겨울에 하는 것이 어디냐 모이는 장소는 갈비. 그러면 거기서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육회도 먹고 뭐 이렇게 봐서 먹고 좋으면 다 먹어. 각자 다 먹어. 계산을 어디서 하냐 본사에서 와서 해. 이거 전 세계에도 이런 회사가 없어요.

면담지원자: 지금은 유니드

구술자: 유니드 본사에서 공장에서 법인 카드 가져와서 다 계산해야지. 우리는 마음 편하게 그냥 먹는 거야.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럼 그게 왜 여기까지 이렇게 지속되느냐. 서로 신뢰라는 거야.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랑 같이 통화하고 그 사장님들하고 전무들하고 가서 통화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인정하고 그 초창기에 장화 신고 눈만 뜨고 다녀요. 코 다 가리

고 현장에 가서 눈물 콧물 숨도 못 쉬어 숨 쉬는 방독면 있잖아. 마스크 그걸 쓰면 외부 공기를 들어오면서 가스가 여기서 걸러줘. 포화 상태로 계속 막 그러면 눈물 그 놈이야 쓰러지고 그렇게 긁어 있어요. 장화 신고 그런 회사를 어디 가서 한 바퀴 굴러도 먼지 하나 묻지 않는 회사로 만들어 놓고 나갔어요.

면담지원자: 대단하시다 진짜.

면담자: 그러니까 영웅담 같이

구술자: 그만큼 고맙고 다 인정해 주는 거야.

면담자: 처음에는 이제 월급이 적게 스카우트 해 가는데 월급이 적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지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옮겨가길 잘했다는 마음이 드시겠어요. 진짜

구술자: 물고기도 큰 물에서 놀아야 이게 크지 조그만 항아리 어항에서 자라면 그게

면담자: 성견지명이 있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면담지원자: 급여 2배를 받고 작은 회사를 가보셨잖아. 그러니까 아시는 거

면담자: 진짜

면담지원자: 급여 2배

면담자: 참 말 못한 이야기들이 많군요.

구술자: 교회에서 때 일어난 일 지금 이거 상조 회사자가 이거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돌아가시는 분이 때가 좋을 때 돌아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 밤 1시고 뭐 2시고 겨울이고 봄이고 그러면 저는 전화 받으면 저 사무실 없어요. 그냥 요거 하나만 가지고

면담지원자: 아

구술자: 그리고 나는 이게 생명이야. 가장 살아가면서 슬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무서울 때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그럼 내가 안 받으면 안 돼

면담지원자: 굉장히 철학적인

구술자: 어떻게든지 받아야 돼. 봐서 그 물속에서도 튀어나와야 돼. 잠자리에 있다가도 후딱 튀어나고 달려가 그러면 정황 없지 뭐. 같이 돌아가신 분이 다양해요. 엄마 딸하고 이야기하다가 엄마가 “야 나 저기 참외가 먹고 싶어” “응 엄마 그래 내가 사 올게” 갔다 왔는데 돌아가신 거야 그 울면서 당장 빨리 오라는 거야. 그냥 무섭거든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런데 당장 가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안아주고 상담해 주고

11. 구술 면담 참여 소감 (01:17:55~01:18:58)

면담자: 저희 이제 미추홀구 이런 지역 기록 사업에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또 소감과 또 이 기록을 마주하게 될 미래 세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한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술자: 내가 살아가면서 그 지역에 나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끼쳐준 거는 전혀 없는데 마지막에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택해서 내가 과거에 지냈던 그런 어떤 흔적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음 사람이 다만 그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그거를 읽고 어떤 정감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그런 데 내가 써 있다는 게 보람이 있고요. 또 그렇게 그런 바람이 있고 그래요.

면담자: 감사합니다.

구술자: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감사해요. 우리가 이것도 인연이에요.

*녹취문 내용을 세부 주제로 나눠 시간 기입

글씨체 : 함초롬바탕

글씨크기 : 세부주제-12pt(볼드체 적용) / 내용-10pt

줄간격 : 200%